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가정경제의 시작은

'딴 주머니' 없애고 부부간 대화부터

가족 富의 목표·잉여자금 활용법 흉금 터놓고 '작전'짜야

기업들의 수출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내수경기는 개선되지 않다보니 자꾸 가족간 대화가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가족간 대화가 없다는 것은 부부간 재무목표가 상이하다는 것을 말한다. 부부간 재무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방법을 결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상호간의 재무목표는 무시한 채 부부가 재무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각자의 투자 방식을 고집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집을 사고 싶어한다고 가정해보자. 남편은 빚을 지는게 싫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중소형 주택을 사고 싶어하고, 아내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중대형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수 있다. 이때 부부간 대화를 통해 서로 생각하는 주택 규모와 삶의 질적인 부분, 향후 투자가치에 대해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의견을 모아서 합의하에 주택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간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의 재무적인 목표에 대해 모른다면 일방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사결정을 한 후, 이를 배우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에 투자한답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아 중대형 주택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향후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그 반대가 될 경우에는 늘어나는 이자에 자산가치 하락까지 겹쳐 더욱더 배우자에게 문제를 숨기려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독자 여러분들이 촌수로는 부부가 무촌이지만, 돈에 관해서는 사돈의 팔촌보다 못하는 관계라면 이제는 이를 청산해야 한다. 부부간, 혹은 부모와 자식간 대화를 시작해서 서로가 원하는 꿈을 공유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화의 시작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물꼬가 터진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 경제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로 꿈을 공유했다면 경제 통합은 반드시 이뤄야한다. '내가 벌어 내가 쓰겠다'는 마인드는 미혼에게나 통하는 얘기다. 가족이라면 가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소득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잉여자금을 가족이 합의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몇 년 후 부쩍 늘어난 자산에 만족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성향의 부부들을 만난다. 서로 신뢰하고 투명 경영을 하는 부부, 내가 전문가인데 왜 이런걸 받느냐고 싸우는 부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건드리지 말라는 부부 등등.

누가 과연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독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드린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삼성전자 고화질 디지털 액자 출시

삼성전자가 디지털 사진을 간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고화질 7인치 디지털 액자 2종(모델명 SPF-72V/72H)을 출시해 모델이 선보이고 있다. 이 디지털 액자는 뚜렷한 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할 뿐 아니라 USB, 각종 메모리 카드, 주변기기와 연결해 사진을 감상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유통업계에도 '훈풍'

북한산 제품 판매 활기띨 듯

이달 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향후 북한산 제품의 국내 유통이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경우 국내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판매해온 북한산 농수산물이나 약재, 임가공 제품 등의 유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수산·임가공 제품 판매 늘듯=9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할인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들은 현재 각 매장에서 북한산 농수산물과 약재, 그리고 의류와 냄비 등 국내업체의 북한내 임가공 제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본점과 강남점내 편집매장인 S de S 매장에서 5년 전부터 북한 평양에서 제작된 디알토의 원피스·블라우스·셔츠 등을 판매중이다. 이들 제품은 저렴한 인건비 덕에 국내 제품보다 20% 가량 싸다.

이마트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산물 코너에서 주로 북한산 바지락 등 어패류를 판매하는 데, 이들 매출이 전체 어패류의 20~30%를 차지한다.

현대백화점도 현재 북한산 호두와 표고버섯 등 건과류와 건식품을 국산에 비해 최대 3분의1 가량 저렴하게 판매중이다.

◇소비자 인식 등이 걸림돌=하지만 향후 북한산 제품의 국내 유통이 확대되는 데는 품질과 소비자 인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작년 5월 북한산 더덕·명태·조개살 등의 신선식품과 과자·술·생수 등 가공식품류·수예·도자기 등을 1주일간 한데 모아 판매하는 '북한상품전'을 개최했으나 매출이 일반 행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해 1회성 행사에 그쳤다.

백화점 관계자는 "북한에서 임가공한 의류 등의 제품은 작업 숙련도 등에 따라 중국에서 임가공할 때보다 20% 가량 가격 경쟁력이 있고 품질도 우수하지만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법조업 꼼짝마!…배파라치 뜬다

포상금 최대 200만원

소형기저인망어업이나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 공조조업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양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826억원을 투입해 2천467척의 소형기저어선을 모두 정리했으나, 일부지역에서 다시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해양부는 말했다.

또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 공조조업도 자원을 남획하고 오징어 가격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포상금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불법조업 현장을 목격하고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나 해양경찰서, 각 시·도에 신고하면 당국의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불법조업자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1건당 10만~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연합뉴스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 1위

삼성전기·삼성SDI B+ 등급

환경운동연 대기업 대상 조사

유한킴벌리가 기업의 사회적·윤리적·환경적 가치를 종합평가한 '지속가능경영지수(SMI)'에서 올해 최고점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35대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기후보호에 앞장서는지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유한킴벌리가 68.6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기 67.1점, 삼성SDI 66.4점, 한화석유화학이 65점으로,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이들 4개 기업은 65~69점대의 점수를 받아 B+등급을 받았다.

B등급(60~64점)을 받은 기업은 포스코(64.3점), 대우조선해양(62.9점), 아시아나항공(62.1점), 현대제철(62.1점), LG필립스LCD(61.4점), 하이닉스반도체(61.4점), SK텔레콤(61.1점), KT(60점) 순이다.

B-등급(55~59점)에는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한국전력공사, LG화학, 동국제강, CJ, 삼성코닝정밀유리, 현대중공업, SK인천정유, 삼성전자가 포함됐다.

C+등급(50~54점)은 SK, 삼성중공업, 동부제강, 삼성토탈, 현대건설,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받았다.

두산중공업(49.3점)과 삼성석유화학(48.6점)이 C등급(45~49점)을 받았고, 삼성에버랜드(44.3점)가 C-등급(40~4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지속가능경영지수(SMI·Sustainable Management Index)=기업들을 단순히 재무정보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윤리·환경적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 ▲지배구조 ▲공정경쟁 ▲사회발전 등을 평가했다.